

# 濟州島方言의 時相에 관한 一考

吳 鶴 秀\*

## 目 次

- |  |                                 |
|--|---------------------------------|
| I. 序言  |                                 |
| II. 時相에 관한 意味公準의 設定                              |                                 |
| III. 動詞의 終止法에서의 時相 : '-암入 (엄入-)', '-앗(엇-)'의 時相意味 | 1. '-다가(다)'/'-아(어)서'의 時相意味      |
| IV. 動詞의 接續法에서의 時相                                | 2. '-당/-단', '-앙(영)/-안(언)'의 時相意味 |
|  | V. 結語                           |

## I. 序 言

濟州島는 地域的·歷史的 高립성으로 인하여 그 言語에 있어서 改新波의 影響을 받음이 늦어, 濟州島 자체로서 독특한 分化的 발달을 수행하여 왔다고 보아지며, 또한 言語地理學이 입증해 주는 바와 같이 僻居하고도 進중한 古語들이 많이 간직되어 있어 연구할 가치가 높은 地域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濟州島方言의 音韻分野보다도 形態分野가 韓半島의 여러 方言들과 구별되는 가장 뚜렷한 特性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지는 데 이러한 形態들에서 얻을 수 있는 言語의 古代性的 암시가 國語의 史的 研究에 이바지하는 점은 참으로 큰 것이라 인정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筆者는 먼저, 종래 國語文法의 時相<sup>1)</sup>(tense-aspect) 研究가 주로 행하여졌던 動詞의 終止法에서 濟州島方言의 先語末語尾 ‘-암入(엄入-), ‘-앗(엇-)’의 時相意味를 분석해 보고, 다음으로 지금까지는 時相 研究에서 그 연구가 매우 부진했던 분야라고 할 수 있는 動詞의 接續法에서의 時相과 관련되는 행위연속접미사 ‘-다가(다)’ ‘-아(어)서’를 살펴 보고, 韓國語라는 동일언어권에 속하는 濟州島方言에서 이에 해당하는 ‘-당/-단’과 ‘-양(영)/-안(연)’의 시상형태의미를 분석해 봄으로써 濟州島方言의 國語 史上의 위치를 추정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연구를 전개시키에 있어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時制와 相에 관한 意味公準을 확실히 해야 한다 는 사실이다.

## II. 時相에 관한 意味公準의 設定

現代 國語의 時制가 하나의 문법범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08년 崔光玉의 「大韓文典」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國語文法에서의 時制分類를 보면 네 가지에서<sup>2)</sup> 열두 가지로까지<sup>3)</sup> 되어 있어 그 종류나 형식 또는 구조 및 文法的 意義에 있어서는 학자들 간에 현격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異說이 분분한 상태여서 國語文法에서 아직도 문법범주로서의 시제분류체가 확립되어 있지 못함을 말하여 주고 있다. 近者에 이르러 國語文法學界에 는 재래에 단순히 時制로만 다루어 오던 形態素들에 대하여, 時制 혹은 相만의 단일 의미를 부여하는 一元的 분석을 하느냐 時制-相과 같이 서로 다른 범주의 의미를 동시에 부여하는 二元的 분석을 하느냐 하는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시제론이 대두하게 된 이유는 이들 용어의 概念에 관한 규정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George Lakoff(1972)는 「Linguistics and Natural Logic」에서 自然言語를 분석하는 데 意味公準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시사에 따라 앞으로 時相形態意味를 분석하는 데 기초가 되는, 승인을 필요로 하는 근본명제

- 
- 1) 本考에서 말하는 時相은 時制와 相을 함께 일컫는 用語로 쓰인다.
  - 2) 李熙昇, 「새고등문법」(서울, 一潮閣, 1957)
  - 3) 崔鉉培, 「우리말본」(서울, 정음문화사, 1983).

라 할 수 있는 時制와 相에 관한 意味公準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장석진은 “話의 장면에서 時間이란 개념을 정리한다면 發話時가 現在요, 그 前後에 過去, 未來가 있고, 이 基本時間과 話中の 事件時, 言及時와의 상호관계에서 개별 언어의 表面 形態統辭의 특징에 따라 문법범주로서 時制가 설정되어진다”고 하고 있으며<sup>4)</sup> 남기심은 “時制란 시간의 흐름의 선상에서 談話時와 事件時 혹은 事件時 相互間과 談話時 사이의 先後關係를 보이는 개념”이라고<sup>5)</sup> 밝혔다.

그렇지만 위에서와 같이 現在時를 시간흐름의 先後關係를 정의하는 基準時點으로 잡고 現在時를 發話時와 일치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데에는 時相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話用論上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sup>6)</sup>

- (1)a. 이 말을 하는 동안에 태어나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 b. 지금 현재 태어나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現在時와 發話時를 동일시한다면 (1)a와 (1)b는 同義文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a는 發話의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發話時는 하나의 有限區間을 형성한다. 반면에 (1)b의 경우는 現在라는 時區間의 양극점이 명백히 定義될 수 없으니, 現在는 한 순간이 될 수도 있겠고, 영원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現在時는 有限이 아닌 無限區間을 형성한다. 요컨대, (1)a의 경우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정해지지만 (1)b의 경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1)a와 (1)b는 同義文이 아니며 또한 發話時와 現在時를 동일시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現在時를 發話時와 동일시하는 것은 時計를 절대적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의 시간적 先後 위치를 판가름하는 뜻말

4) 장석진(1973a), “時相의 양상: 계속 완료의 생성적 고찰”(서울대, 語學研究 9-2)

5) 남기심외 2人, 「現代國語文法」(대구, 계명대 출판부, 1975).

6) 李基用(1976), “時制論”(서울대, 語學研究 12-2).

이 되는 基準時에는 發話時가 기준시가 되는 絶對基準時 이외에 發話時가 아닌 어떤 다른 상황의 때로 삼은 상황시를 기준으로 하는 相對基準時의 설정이 國語時制의 체계적 설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時制란 어떤 상황의 時間線上的 한 위치를 어떤 다른 상황의 그것에 관계지우는 문법범주라고 할 수 있다. 즉 時制는 두 상황의 시간적 선 후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의 문법범주로 이에는 시제범주를 상호 관계지워 주는 상황시와 발화시라는 두 시점이 설정되어진다고 하겠다.

다음, 相이란 원래 슬라브 諸語에서 動詞의 活用에 完了와 未完了의 구별을 지칭하기 위해 처음으로 쓰인 말인데, 회랍어에서 完了相은 어떤 동작의 終了로 인해서 이루어진 상태, 그 결과가 드러나 있는 것을 일컬었다. 물론 相은 時制와 어떤 동작, 사건 혹은 일의 상태가 시간적 흐름 속에서 기준시점을 중심으로 하여 그 前, 後 어느 점에 존재했느냐 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작이나 사건의 시간적 樣態 혹은 동작이나 사건 속에 시간적 幅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sup>7)</sup> 그런데 여기서 시간적 폭이라 함은 동작 혹은 사건의 시작과 끝을 연결시켜 주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相이 시간성의 자질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과 동작이나 사건을 어느 점에서 관찰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제시해 준다.

그러므로 相과 時制를 각각 달리 一元的으로 본다면 재래에 時制로만 다루어 오던 형태소가 時制와 相을 나눌 수 없는 그들의 혼합자질의 융합체인 국어<sup>8)</sup>에서는 相과 時制의 개념규정에 다소 차이점이 생기게 된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相의 개념을 내려 보면, 相이란 어떤 상황의 시간선상의 한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時間線上的 분포 즉 基準時와 같은 외부의 시점과는 관련을 짓지 않고 어떤 상황의 여러 가지 內的 시간의 構成을 가리켜 주는 일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國語의 올바른 시제체계를 기술하기 위하여는 재래에 時制形態素라 불리워 왔던 것들에 대해 時制와 相의 양면성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國語의 相은 이송녕의 15世紀 국어에 대한 5종류, 現代 국어에 대한 김민수의 5종류와 이인모의 6종류로 분류되었으며 方言으로는 濟州島方言의

7) 강정희(1978), “제주 방언의 時相 研究”(이화어문논집2, 이화어문화회).

8) 강정희(1978), *ibid.*, 재인용

定動詞 語尾에 대한 현평효의 4종류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內容的인 完了性을 기준으로 하여 完了相과 未完了相이라는 類概念을 설정하여 놓고 다시 각각에 대하여 그의 하위개념인 種概念으로 완료상에 終結相, 結果相을 미완료상에 持續相(進行相)과 反復相, 中止相을 포함시켜 구분해 보기로 하겠다.

持續相, 反復相은 동작 또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든가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 동작 또는 상태가 완료되는 한계점은 조금도 고려되어 있지 않은, 아직 완료되지 않는 미완료의 모습이다. 그리고 아직 완결되지 않았더라는 말에는 지속도 반복도 아니고 그렇다고 종결되었다고도 할 수 없는 중지상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여기에 中止相을 설정하여<sup>9)</sup> 持續相, 反復相, 中止相을 통틀어 未完了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終結相, 結果相은 그 동작 또는 상태가 종결되었거나 그 결과의 양상을 표시하는 것으로, 完了相은 어떠한 동작이나 상태가 그 과정의 귀결점에 도달되어서 완결된 상태가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총칭하여 完了相이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인모는 종결상과 결과상 이외에 始發相과 瞬間相을 이 완료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행동의 완료란 어떠한 과정의 귀결점에 도달되어 완결된 상태가 드러난, 이미 동작이 아니라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Ⅲ. 動詞의 終止法에서의 시상

#### 1. ‘-암ㅅ(엄ㅅ-)’, ‘-앗(엇-)’의 시상 의미

濟州島方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發話가 言衆들 간에서 매우 빈번히 주고 받는다.

9) 강정희는 '제주 방언의 時相 研究'에서 中止相을 설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중지상을 설정하여 살펴 보게 될 것이다.

- (1)a. 애긴 누언 잠찌<sup>10)</sup>(아기는 누워서 자고 있다)  
 난 이디서 밥 먹엄찌(나는 여기서 밥을 먹고 있다)  
 복순인 집의서 공부햏염찌(복순이는 집에서 공부하고 있다)
- (1)b. 애긴 좀 잘 자찌<sup>11)</sup>(아기는 잠 잘 잤다)  
 난 이디서 밥 먹어찌(나는 여기서 밥을 먹었다)  
 복순인 집의서 공부햏여찌(복순이는 집에서 공부하였다)

이들 文章에서 ‘잠찌’, ‘먹엄찌’, ‘공부햏염찌’들은 각각 그 주체의 ‘자고 있는 상태’, ‘먹고 있는 상태’, ‘공부하고 있는 상태’의 동작들을 가리켜 말해지는 것이다. 즉 일정한 동작이 完了되지 않고 持續되고 있는 상태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다음 (1)b항의 발화에서 ‘자찌’, ‘먹어찌’, ‘공부햏여찌’들은 각각 ‘잠자는 행동이 끝난 상태’, ‘먹는 동작이 끝난 상태’, ‘공부하는 행동이 끝난 상태’들을 가리켜 말해진 것이다. 이 (1)b항의 先語末語尾들이 나타내는 意義는 일정한 동작이 완료된 상태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1)a항과 (1)b항이 반드시 未完了와 完了의 차이만은 아니다. (1)a항은 (1)b항이 過去의 상황임에 비하여 現在의 상황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方言의 發話에서 보아 가기로 하자.

- (2) 철순 학교레 감찌(철수는 학교로 가고 있다)  
 (3) 는 말 잘 ㄱ랍찌(너는 말을 잘 하고 있다)  
 (4) 난 이디서 밥 먹엄찌(나는 여기서 밥을 먹고 있다)

이들 文章은 모두 叙述法語尾 ‘-저’로 끝난 平叙文이다. 이들 평서문에서의 語尾構成體를 분석한다면 語末語尾 ‘-저’와 語幹 ‘가-’, ‘쿨-’, ‘먹-’들 사이에 ‘-암ㅅ(엄ㅅ-)’이 개재되어 있다.<sup>12)</sup> 이 ‘-암ㅅ(엄ㅅ-)’이 바

10) 標準語의 대역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相에 있어서 미완료지속상에 해당하는 경우 ‘하고 있다’, 완료 종결상이나 완료결과상의 경우에 ‘하였다’로 번역한다.

11) ‘잠찌’, ‘자찌’의 形態素分析은 ‘자-암ㅅ-저’, ‘자ㅅㅅ-저’로 된다고 본다. (홍종림, 1976) 본고에서도 이렇게 분석될 것이다.

12) ‘감찌’에서는 ‘-암-’이 ‘감-’에 축약되어졌음.

로 동작이 현재 지속중, 즉 미완료지속의 기능을 표시해 주는 形態素이다. 方言에서는 또 다음과 같은 發話도 흔히 주고 받는다.

- (5)a. 는 무시걸 보암디?(너는 무얼 보고 있니?)  
       는 무시걸 먹었디?(너는 무얼 먹고 있니?)  
 (5)b. 자인 무시걸 보암시니?(저 앤 무얼 보고 있니?)  
       자인 무시걸 먹었시니?(저 앤 무얼 먹고 있니?)

이들 發話는 어느 것이나 ‘보고 있는 상태’, ‘먹고 있는 상태’들을 의식하고서 질문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疑問文이요, 그 文末에 위치한 ‘-디’, ‘-니’는 疑問法語尾라고 하게 된다. 이들 예에서는 ‘현재 보고 있는 상태가 현재 完了되지 않고 持續되고 있음’, ‘현재 먹는 동작이 완료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각각 이들 동사의 ‘-암(엄-)’ ‘-암시(엄시-)’ 形態素가 표시해 주고 있다. 그런데 (5)의 文例에서 보면 先語末語尾 ‘-암(엄-)', ‘-암시(엄시)’가 각각 일반적으로 의문법어미 ‘-디’, ‘-니’와 결합되어, 前者는 이인칭주어와 後者는 삼인칭주어와 호응한다는 統辭論的 制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以上的 例에서 동작이나 행동이 현재 완료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표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形態素에 ‘-암(엄-)', ‘-암시(엄시-)', ‘-암시(엄시-)’가 있음을 보았다. 그런데 ‘보암디’나 ‘보암시니’라는 질문에 구별 없이 그 대답은 ‘보암쩌’나 ‘보암시네’로 나타난다는 사실로 보아 ‘보암디’와 ‘보암시니’가 그 의미상으로는 同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아울러 先語末語尾 ‘-암(엄-)’은 ‘-암시(엄시-)', ‘-암시(엄시-)’와 同一 形態素임을 알 수 있어, 이들은 서로 동일형태소의 異形態들임을 단정할 수 있겠다. 따라서 여기서는 ‘-암시(엄시-)’를 대표로 선택하여 基本形<sup>13)</sup>으로 정해 둔다.

濟州島方言에는 동작이 현재 완료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표시하는 형태소와 구조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는 時相形態素가 있다.

13) 어느 형태를 基本形으로 정하느냐 하는 데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交替하였다고 설명하는 것이 더 自然스러운가 하는 것, 통계적으로 더 자주 쓰이는 것 등의 기준이 있으나 여기서는 平叙文에 많이 나타나는 先語末語尾 <-암시(엄시-)>을 기본형으로 잡아 둔다.

- (6) 철순 오래 놀아찌(철수는 오랫동안 놀았다)  
 (7) 난 그 책을 몽땅 읽어찌(나는 그 책을 다 읽었다)  
 (8) 봄이 오난, 푸성귀가 나찌(봄이 오니, 푸성귀가 났다)  
 (9) 가인 성공하여찌(그 아이는 성공하였다)

여기 表記해 놓은 예들은 모두 平叙文이다. (6)~(9)의 문장에서 그 동사의 先語末語尾가 표시하는 바는 (6)(7)에서는 행동·동작이 종결되어 완료되었음을 (8)(9)에서는 행동·동작이 이제 막 끝나서 그 결과가 방금 드러나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동작의 완료를 표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形態素는 ‘-아시(어시-)’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發話도 일상 흔히 주고 받는다.

- (10)a. 는 무시걸 먹언디?(넌 무얼 먹었니?)  
           는 무시걸 보안디?(넌 무얼 보았니?)  
 (10)b. 자인 무시걸 먹어시니?(저 앤 무얼 먹었니?)  
           자인 무시걸 보아시니?(저 앤 무얼 보았니?)

이들은 모두 의문문이요, 그 文末 위치한 ‘-디’, ‘-니’가 의문범어미임은 (5)의 예에서와 같다. 이들 예에서는 ‘먹는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보는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각각 이들 動詞의 先語末語尾 ‘-안(언-)’, ‘-아시(어시-)’가 표시해 주고 있다.

이상에서 동작이 종결되어 완료되었음을 또는 동작이 이제 막 끝나서 그 결과가 드러나 있음을 나타내 주는 기능을 표시하는 形態素에 ‘-아시(어시-)’, ‘-안(언-)’, ‘-아시(어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안디’나 ‘보아시니’라는 질문에 구별없이 그 대답은 ‘보아찌’나 ‘보아시네’로 나타난다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形態素 ‘-안(언-)’, ‘-아시(어시-)’가 각각 일반적으로 의문범어미 ‘-디’, ‘-니’와 결합되어 前者는 이인칭주어와 후자는 삼인칭주어와 호응한다는 統辭論的 제약 이외에는 ‘보안디’와 ‘보아시니’는 그 의미상으로 동일한 것임을 말하여 주는 것이고, 아울러 先語末語尾 ‘-안(언-)’이 ‘-았(었-)’, ‘-아시(어시-



－)’와 同一한 形態素임을 방증하는 것이 된다. 여기서도 平叙文에 많이 나타나는 ‘－앗(엇－)’을 대표로 하여 기본형으로 설정해 둔다.

그리고 時制上으로 보면 先語末語尾 ‘－앗(엇－)’은 過去時制를 나타내 주는 과거 표시의 形態소임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 例文들에서 ‘－앗(엇－)’의 有無에 의하여 현재상황과 과거상황이 선명하게 갈라짐에서 明白히 알 수 있다.

- (11)a. 아간 창호가 켈잘 뛰어저(아까는 창호가 제일 잘 뛰었다)
- (11)b. 지금은 영수가 켈잘 뛰엄쩌(지금은 영수가 제일 잘 뛰는구나)
- (12)a. 나 어제 집의서 TV만 보아쩌(나 예제는 집에서 TV만 보았어)
- (12)b. 나 요즘은 잡지만 읽엄쩌(나 요즘은 잡지만 읽어)

에서 ‘뛰어쩌’, ‘보아쩌’는 ‘아까’나 ‘어제’ 등과 어울려 過去의 상황을 나타내 주고 있고, 그와 짝이 되는 ‘뛰엄쩌’, ‘읽엄쩌’는 ‘지금’이나 ‘요즘’ 등과 어울려 現在의 상황을 나타내 주고 있다. 여기에서 ‘－앗(엇－)’이 하는 일이 過去時制를 나타내 주는 일이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앗(엇－)’이 하는 일이, 完了表示의 기능과 더불어 過去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文例에서 보면

- (13)a. 가인 공부햏염서나?(그 애는 공부하고 있더냐?)  
 응 햏염서라(응, 하고 있더라)
- (13)b. 자인 어드레 감이라니?(저 애는 어디로 가고 있더냐?)  
 혹교레 감이라라(학교로 가고 있더라)

先語末語尾 ‘－엄시－’, ‘－암－’이 각각 回想法語尾 ‘－어－’, ‘－라－’에 前接하므로 현재시제라 볼 수 없다고 하여 形態素 ‘－암入(엄入－)’, ‘－앗(엇－)’의 시제표시 기능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데,<sup>14)</sup> 이는 標準語의 ‘－더－’에 해당하는 形態소를 포함하는 回想時制를 相對時制로 이해하면

14) 홍종립(1976), “제주도방언의 先語末語尾 ‘암(엄－)’, ‘－암시(엄시－)’, ‘－안(언－)’, ‘－아시(어시－)’에 대하여” 「김형규 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서울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될 것이라 본다. 즉 話者가 현장에서 어떤 상황을 확인한 때를 基準時로 하여 회상법어미 ‘-어-’, ‘-라-’를 제외시켜 보면 例文 (15)는 각각 다음의 例文과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15)a'. 가인 공부했었이나?(그 아이는 공부하고 있느냐?)

응 했었찌(응 하고 있다)

(15)b'. 자인 어드레 감이니?(저 앤 어디로 가고 있느냐?)

혹교레 감찌(학교로 가고 있다)

現在의 時制가 남아 ‘-어-’가 ‘-라-’를 제외한 문장의 시제가 정연히 성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相對基準時를 둠으로써 현장에서의 現在, 過去, 未來를 그대로 옮겨 올 수 있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濟州島方言에서는 先語末語尾를 분석할 때 時相形態素를 얻는다. ‘-앗(엇-)', ‘-안(언-)', ‘-아시(어시-)’가 앞에서 말해 온 ‘-암(엄-)', ‘-암시(엄시-)', ‘-암入(엄入-)’와 구조적으로 대립관계에 서며 그 기능은 時制上으로는 過去 對 現在, 相으로서는 完了終結이나 完了結果 對 未完了持續을 표시해 주는 데 있으며, 同一한 완료종결이나 완료결과상과 미완료지속상의 형태소로서 각각 몇 가지가 있는데 이는 異形態로서 단지 통사론적 기능을 달리 하는 것이라고 요약해 말할 수 있겠다.

#### IV. 動詞의 接續法에서의 시상

##### 1. ‘-다가(다:다가의 준말)’/‘-아(어)서’의 時相意味

Ⅱ장에서 필자는 국어 시제체계를 보편 타당성있게 기술하려면 한 形態素에 내재되어 있는 時制(時間性), 相의 양면성을 인정하자고 하였다. 그 이유는 형태소 ‘-앗(엇-)’이 過去와 完了라는 시간성과 상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앗(엇-)’을 관형법으로 변형시켜 보면 나타난다.

- (1) 그는 갔다. → 간 그(過去, 完了)  
 (2) 나는 떡을 먹었다 → 떡을 먹은 나(過去, 完了)

(1), (2)는 동작주의 동작을 파악해 볼 때 ‘가다’, ‘먹다’ 라는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고 發話時를 現在로 할 때 이미 지난시가 되어서 이 形態素에 二元的인 의미부여에 무리가 없음을 보여 준다.

또한 (1), (2)를 동일 동작주의 연속으로 접속시켜 보자.

- (3) 그는 갔다. 그는 왔다. → 그는 갔다가 왔다.  
 (4) 나는 떡을 먹었다. 나는 떡을 빨았다. → 나는 떡을 먹었다가 빨았다.

(3), (4)는 ‘-았(었-)’의 의미자질로 인하여 일차적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완료된 결과가 ‘-다가’로 인해서 中止됨을 보여 준다. 다시 한 번 (3), (4)를 ‘-아(어)서’에 의해 접속시켜 보자.

- (5) 그는 갔다. 그는 왔다. → \*그는 갔아서 왔다.  
 (6) 나는 떡을 먹었다. 나는 떡을 빨았다 → \*나는 떡을 먹어서 빨았다.

(5), (6)과 같이 완료표지 ‘-았(었-)’ 위에 ‘-아(어)서’를 쓸 수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아(어)서’가 지니고 있는 時相意味資質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다가’와 ‘-아(어)서’가 지니는 時相意味를 파악해 보기로 한다.

### 1) ‘-다가(다 : 다가의 준말)’

이인모는 이를 어떤 동작이 그치고 다른 움직임으로 바꾸어 짐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여 終結相으로 규정하였으며, 최현배, 유창돈은 중단형이라 일렀고, 이송녕은 과정전환법이라 일컬었다.<sup>15)</sup> 그런데 양인석은

15) 이인모(1970), “用語의 Aspect(양상)의 연구”, 『아시아문화1』, 우석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7)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았다가 중간에서 내려라.  
 (8) 이 차를 타고 가-! \*다가 았다가 올 때는 걸어 오너라.

위 예문에서 ‘-다가’는 행위의 중단이며 미완료임에 반하여 ‘-았다가’는 행위의 완료를 의미한다<sup>16)</sup>고 하였다. 그러나 강정희는 ‘-았다가’가 완료가 되는 것은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완료표지인 ‘-았-’때문이며 ‘-다가’는 동작·상태가 귀결점을 지향하는 과정 중 中止되었음을 나타내었다고 하고 있다.

필자는 相의 과약이 話者의 주관적인 측면에서 이루어 진다고 생각하여 이를 終結相 보다는 未完了相과 이의 하위범주인 中止相으로 복합적으로 부여하고자 한다.<sup>17)</sup>

그런데 여기서 ‘-다가’와 형태가 몹시 같으나 그와는 판이한 ‘-어다가’가 있는 데 이는 다음과 같이 쓰이는 것으로

- (9) 羅喉羅 도려다가 두어늘(月釋七: 8)  
 (10) 雜草木 것저다가 는출 두어라 ㅎ야늘(月曲: 62)

이 ‘-다가’는 近稱을 나타내는 보조동사 ‘다그다’가 ‘다그어 → 다거 → 다가’로 된 것이니 그 語末語尾는 오직 ‘-아’일 뿐인 것이다. 따라서 그 앞의 ‘-어’는 기본동사의 어미인 것이다. 이들을 濟州島方言으로 옮긴다면 ‘-어단’ 또는 ‘-어당’으로 대역될 것이다.

## 2) ‘-아(어)서’

- (11) 고기를 낚아서 끊어 먹었다.  
 (12) 손잡이를 잡아서 돌렸다.  
 (13) 너무 먹어서 미안하구나

16) 양인석(1965), “한국어의 접속화”, 현대국문법(대구, 계명대출판부)

17) 강정희(1978), *ibid*, 힌트 얻음.

위의 例文들은 先行동작인 ‘뛰다’, ‘잡다’, ‘먹다’라는 동작의 귀결점에 도달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선행동작의 결과를 가지고 다음의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문장으로서의 Marieau의 結果相이 되겠다. 따라서 필자는 ‘-아(어)서’를 完了相과 이의 하위범주의 하나인 結果相 또는 終結相이라 하겠다. 또한 이 形態素는 완료표지인 ‘-았(었-)’이 배합될 수 없다는 제약조건을 가진다. 그렇지만

- (14) 가-(다가) 놀았다.①  
 놀고 있다.②  
 놀아라.③

와

- (15) 편지를 찢-(어서) 버렸다.①  
 버리고 있다.②  
 버려라.③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가’, ‘-아(어)서’ 자체가 時間性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後行동작 ①②③에 의해서 時制가 결정되어지고 있다. 즉 후행 동작의 상황을 基準時로 하는 相對基準時에 의해 ‘-다가’, ‘-아(어)서’의 時制가 이해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가’, ‘-아(어)서’가 넓은 時相的 意味를 가지게 됨은 ‘-다가’, ‘-아(어)서’의 時制가 후행동작에 의한 잉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以上을 종합하면 ‘-다가’는 未完了中止相이며 ‘-아(어)서’는 完了結果相 또는 完了終結相으로 파악되며 時制는 ‘-다가’, ‘-아(어)서’ 모두 후행동작이 표시하는 시상적 의미의 제약을 받아 現在·過去·未來의 時制的 意味를 나타낸다고 하겠다.

## 2. ‘-당／-단’, ‘-앙(엉)／-안(언)’의 時相意味<sup>18)</sup>

앞에서 살펴 본 ‘-다가(다)’, ‘-아(어)서’에 해당하는 濟州島方言의 행위

18) 이 부분은 강정희(1978)의 “제주 방언의 時相 연구”를 많이 참조하였다.

연속접사로서, 叙述形語尾 ‘-다’에 제2차적 형태부로서 ‘-으’, ‘-ㄴ’을 연결하여 연결 어미로서의 독특한 기능을 발휘하게 된 ‘-당/-단’과 그밖의 ‘-양(영)/-안(언)’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들 접미사의 상의 의미는 표준어의 相의 의미와 같다고 하겠으나 時制上으로는 특이한 대립을 보여 주고 있다. 이제 예를 들면서 살펴 보기로 하겠다.

### 1) “-다+으”形

- (1) ① 놀당 가라(놀다가 가라)  
 \*② 놀당 잠찌(놀다가 가고 있다)  
 \*③ 놀당 자찌(놀다가 잤다)
- (2) ① 일흥당 자라(일하다가 자라)  
 \*② 일흥당 잠찌(일하다가 자고 있다)  
 \*③ 일흥당 자찌(일하다가 잤다)

(1)(2)의 ①은 話者의 發話時를 현재라는 기점으로 今後에 行하여질 동작 즉 아직 未了된 동작을 말하는 것이고 ②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동작, ③은 이미 완료된 동작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①은 文法的인 文章이 되지만 ②③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당’에는 未來의인 동작이나 상태 이외에는 時相的으로 호응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을 위해서 ‘-당’의 대립형인 ‘-단’의 용법을 살펴 보겠다.

### 2) “-다-ㄴ”形

- (3)\* ① 놀단 가라(놀다가 가라)  
 ② 놀단 잠찌(놀다가 가고 있다)  
 ③ 놀단 자찌(놀다가 잤다)
- (4)\* ① 일흥단 자라(일하다가 자라)  
 ② 일흥단 잠찌(일하다가 자고 있다)  
 ③ 일흥단 자찌(일하다가 잤다)

(1)(2)에서는 ①이 文法的인 문장 ②③이 非文法的인 文임에 비하여 (3)(4)에서는 ①이 비문법적인 문장 ②③이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후행하는 동작이나 상태의 조건은 (1)(2)의 ①과 동일하게 제시하였으나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까닭은 바로 ‘-당/-단’이 내포하고 있는 時相的인 대립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들 접미사를 時制-相의 二元的 구조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相으로 볼 때는 未完了中止相을 지니고 있으나, 표준어의 ‘-다가’가 상황시(또는 發話時)를 基準時로 하는 시간상의 전후관계에 ‘-다가’가 어느 곳에서나 適用되는 것과는 달리 ‘-당/-단’은 그 위치를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좀 더 고찰의 영역을 넓혀 ‘-아(어-)서’에 대응하는 ‘-앙(영)/-안(언)’을 살펴 보자.

### 3) “-앙(영)”形

- (5) ① 누영 자라(누워서 자라)  
 \*② 누영 잠썸(누워서 자고 있다)  
 \*③ 누영 자썸(누워서 잤다)
- (6) ① 오랑 소리 흥영썸(와서 노래 하고 있다)  
 ② 오랑 소리 흥영썸(와서 노래하고 있다)  
 \*③ 오랑 소리 흥영썸(와서 노래 했다)

(5)(6)에서 ①의 후행동작은 일단 선행 동작이 완료된 상태에서 행하여지는 것으로 여기서 ‘눕다’, ‘오다’의 相은 未完了가 된다. 그리고 ②③의 경우는 앞의 (1)(2)의 ②③과 마찬가지로 未來的인 동작이나 상태 이외에는 時相的으로 호응이 되지 못하고 있다.

### 4) “-안(언)”形

- (7) \*① 누언 자라(누워서 자라)  
 ② 누언 잠썸(누워서 자고 있다)  
 ③ 누언 자썸(누워서 잤다)

- (8) \*① 오란 소리 하라(와서 노래 해라)  
 ② 오란 소리 하염져(와서 노래 하고 있다)  
 ③ 오란 소리 하여져(와서 노래 했다)

(5)(6)의 ‘-양(영)’과는 반대는 ‘-안(언)’은 過去 또는 完了的인 후행 동작에 호응하고 있다.

以上에서 ‘-당/-단’, ‘-양(영)/-안(언)’은 未完了中止, 完了結果나 完了終結이라는 相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았다. 그렇지만 時間上의 前後關係는 서로 반대되는 대립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대립현상의 요인은 형태 ‘-으’과 ‘-ㄴ’의 용법을 알아 봄으로써 ‘-당/-단’, ‘-양(영)/-안(언)’의 시상 의미를 확실히 할 수 있겠다.

### 5) ‘-으’의 용법

‘-당/-단’, ‘-양(영)/-안(언)’의 제2형태부라 할 수 있는 ‘-으’과 ‘-ㄴ’은 話者의 시간개념과 관계가 깊다.

예를 들면

- (1) ① 밥 먹으심게(밥을 먹고 있구나)  
 ② 자인 말ㄴ란 감으심게(저 아이는 말하고서 가고 있구나)  
 ③ 어으심게(없구나)  
 ④ 아이가 울으며 감으며(아이가 울면서 가고 있다)  
 ⑤ 나ㄴ뻘으 하으심수다(나쁘다고 하고 있습니다)
- (2) ① 오랑 구경 하당 감으며(와서 구경하다가 가십시오)  
 ② 나가 가당 만나쿠다(내가 가다가 만나겠습니다)  
 ③ 잘 살렝 하라(잘 살라고 해라)  
 ④ 고르민 가채 하다(말하면 가려고 한다)
- (3) ① 가당오당 들름네다(가다가 오다가 들립니다)  
 ② 신문 보당 밥 먹으민체 하다(신문 보면서 밥 먹으면 체할 것이다)

(1)의 ①②③은 이미 완료된 동작·상태의 모습을 관찰한 상황시를 발화시와 동일하게 잡은 것이며 ④⑤는 지속되고 있는 동작의 상태를 발화시와 동일하게



잡은 것이다. 따라서 ①~⑤의 ‘-ㄷ’은 청자에게 전달하는 話者의 심적 표현에 시간성을 내포한다고 하겠다.

(2)의 ①~④의 ‘-ㄷ’은 명령문 ①③과 의도법 ②④에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 문장의 意味資質이 未來를 지니므로 ‘-ㄷ’이 未來時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서 ‘-ㄷ’이 미래로 쓰일려면 후행하는 동작·상태가 의도법이나 명령문에 의해 표현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의 ①은 습관적인 동작이며 ②는 선행동작과 후행동작이 時間上의 前後關係를 결정짓기 어려운 同時性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습관적인 동작이나 同時性을 지니는 동작, 言衆들에게 眞理로 받아 들여지는 사실, 동작·상태의 나열 동작의 반복 등의 言語表現에 있어서는 모든 시간영역에 걸쳐 사용되기 때문에 어느 한 위치를 가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3)과 같은 경우에는 時間을 초월하는 不定時를 인정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이상을 종합하면 형태 ‘-ㄷ’은

- 發話時 현재 지속되고 있는 동작이나 상태
- 발화시를 기점으로 일어날 동작이나 상태
- 不定時에 호응한다.

## 6) ‘-ㄴ’의 용법

‘-ㄴ’의 쓰임은 ‘-ㄷ’의 쓰임보다 범위가 넓지 않다.

예를 들면

- (4) ① 가이 차 탄 가베찌(그 아이 차 타고 가버렸다)
- ② 아들ㄱ라 죽으렌 호여수다(아들에게 죽으라고 했습니다)
- ③ 오랏단 가수다(왔다가 갔습니다)
- ④ 나도 죽젠 호여수다(나도 죽으려고 했습니다)
- ⑤ 우난 때려찌(우니까 때렸다)
- (5) ① 자이 차 탄 감찌(저 아이 차타고 가고 있다)
- ② 아들ㄱ라 죽으렌 호염수다(아들에게 죽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 ③ 나쁘덴 호염수다(나쁘다고 하고 있습니다)
- ④ 가이도 공부하젠 호염찌(그 아이도 공부하려고 하고 있다)
- ⑤ 가단 쉬엄수다(가다가 쉬고 있습니다)

- (6) ① 간 보난 잠십테다(가서 보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② 가단 보난 울엄서라(가다가 보니까 울고 있더라)  
 ③ 밥 먹어선계(밥 먹었더라)

이와 같은 문장에서 (4)의 ①~⑤는 후행하는 동작을 기준으로 하는 狀況時나, 發話時 현재 완료된 상태를 나타내며 (5)의 ①~⑤는 후행동작이나 상태가 發話時 이전에 시작되어 현재 지속되고 있으며 (6)은 回想法인 문장에 호응하고 있다. 그런데 (6)의 경우는 표준어의 ‘-더-’를 포함하는 回想時制를 相對時制로 이해하여, 話者가 현장에서 ①은 ‘자고있는 상황’을 ②는 ‘울고 있는 상황’을 확인한 때를 基準時로 하여 Ⅲ장에서와 같이 回想法語尾 ‘-디다’ ‘-어라’, ‘-언계’를 제외시켜 보면, 후행하는 동작·상태가 ①②는 현재의 시제 ③은 과거의 시제가 되어 (6)의 ①②는 (5)의 例 속에 ③은 (4)의 例 속에 포함되어 이해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렇게 볼 때 형태 ‘-ㄴ’은

- 후행동작의 상태가 發話時 현재 완료되었거나
- 후행동작이 발화시 현재 지속되고 있을 때 쓰인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自然言語란 매우 복잡하여서 규칙으로만 묶을 수 있는 현상만큼 불규칙적인 현상도 많다. 그 例 中의 일부로서 본고의 대상인 接尾辭들에서 발견되는데 첫째는 ‘-으’形과 ‘-ㄴ’形이 어느 시점에서 혼용되고 있으며, 둘째는 ‘-으’形이 시간 전 영역에 걸쳐 사용되며, 셋째는 ‘-난’의 확대사용예이다. 여기서 첫번째 경우는 앞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규명이 필요하리라 보며, 둘째 경우는 (3)의 예에서 살펴 보았듯이 不定時의 설정이 필요하리라 보며, 셋째 경우는 ‘-난’의 時制基準時點을 發話時보다는 後行節動作時를 기준으로 하는 相對基準時에 의해 설정하는 것이 形態素 ‘-난’의 시제체계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하리라 본다.

## V. 結 語

以上 濟州島方言의 時相意味를 동사의 종지법에서의 先語末語尾 ‘-암사(엄사-), ‘-앗(엇-)’와 標準語의 ‘-다가’, ‘-아(어)서’에 해당하는 행위연속 접미사 ‘-당/－단’, ‘-앙(영)/－안(연)’을 중심으로 話者들의 發話를 통

하여 살핀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다.

(1) 한 形態素의 時相意味分析은 時制와 相, 相과 法 等の 二元的 구조로 파악되어야 한다.

(2) 先語末語尾 ‘-암시(엄시-)’, ‘-암(엄-)’, ‘-암시(엄시-)’와 ‘-앗(엇-)’, ‘-안(언-)’, ‘-아시(어시-)’는 각각 同一形態素의 異形態라 할 수 있는데 前者는 時制上으로는 現在의 상황을 相으로는 未完了持續, 後者는 시제상으로는 過去의 상황을 상으로는 完了終結이나 完了結果를 의미한다고 하겠는데, 여기서는 平叙文에 많이 나타나는 <-암시(엄시-)>와 <-앗(엇-)>을 基本形으로 정해 보았다.

(3) <-암시(엄시-)>와 <-앗(엇-)>의 時制表示 기능은, 回想時制를 相對時制로 이해하면, 즉 話者が 현장에서 어떤 상황을 확인한 때를 基準時로 하여 標準語에 ‘-더-’에 해당하는 回想法語尾를 제외시켜 보면 그 문장의 시제가 정연히 성립되고 있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4) ‘-당/-단’과 ‘-양(영)/-안(언)’의 시제는 각각 未來/過去로 대립되며 이 시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형태 ‘-ㄷ’과 ‘-ㄴ’이다. 그런데 여기서 ‘-ㄷ’形과 ‘-ㄴ’形이 혼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밀한 고찰을 요하는 것으로 차후의 과제로 미룰 수 밖에 없었으며, 또한 ‘-ㄷ’形이 시간 전영역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는 不定時의 設定이 필요하리라 본다.

(5) ‘-당/-단’과 ‘-양(영)/-안(언)’의 相은 前者는 未完了中止相, 後者는 完了終結相이나 完了結果相으로 한다. 그런데 標準語의 ‘-다가’, ‘-아(어)서’는 후행하는 동작의 모습에 따라 時制가 결정되지만 ‘-당/-단’, ‘-양(영)/-안(언)’은 形態素 자체가 時制性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당’, ‘-양(영)’ 뒤에는 發話時 현재 미완료이거나 發話時 이후에 행하여질 동작이 후행하며, ‘-단’, ‘-안(언)’ 뒤에는 과거 또는 완료적인 동작이나 發話時 현재 지속되고 있는 동작이 후행하고 있다.

결국 지금까지 살펴 본 濟州島方言의 形態素들은, 英語의 ‘The lady wh was singing in the room’과 같은 문장에서 ‘was’가 ‘be’ 동작의 過去時制이며 ‘singing’은 進行形이라는 시제와 상의 분석이 가능한 것처럼, 따로 분석할 수가 없어 이들 형태소는 시제와 상을 확연히 나눌 수 없는 그 둘의 혼합체인 것이다. 이는 15世紀에는 時制와 行動의 종별인 相이 서로 떨어질 수는 없는 관

위에 있었다는 점과 관련시켜 볼 때 國語의 史的 研究에서 시사함이 많으리라  
 생각해진다.

## 參 考 文 獻

1. 강정희(1978), “제주 방언의 時相 연구”(이화어문논집2, 이화어문학회)
2. 이승녕(1957), “제주도방언의 形態論的 研究”(연세대, 동방학지3)
3. 李翊燮·任洪彬(1983), 「국어문법론1, (서울, 學研社)
4. 李仁模(1970), “用言의 Aspect(양상)의 연구” 「아시아문화1」 우석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i. 崔鉉培(1983: 열번째 고침), 「우리말본」(서울, 징음문화사)
  - ii. 현경효(1974), “제주도방언의 活用語尾와 문헌어의 비교연구”(문교부제출보고서)
  - iii. 홍종립(1976), “제주도방언의 先語末語尾 -암(엄-), -암시(엄시-), -안(언-), -아시(어시-)에 대하여” 김형규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서울대, 사범대, 국어교육과)